

세계 대공황의 해일, 그 예측과 대안

자본주의 경제의 종말 예견한 공황이론서들

허연

매일경제신문 기자·문화부

어떤 부자(父子)가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었다. 옆 창고에는 석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렇게 석탄이 많은데 왜 우리가 떨고 있지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저렇게 석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떨고 있는 거란다.” 석탄이 팔리지 않아 공황이 도래했고 이 집은 이미 난방 시스템을 석유로 고친 뒤였다.

1920년대 대공황 시대의 짧은 우화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삶의 질의 편차, ‘세계시장’이라는 환상 등 현대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건들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국내 경제위기가 결코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서점가엔 현재의 위기를 ‘공황’ (Panic)의 시각에서 관찰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 붕괴

이 책들은 1920년대 대공황을 재조명하는 책에서부터,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을 공황으로 인식하거나, 세계경제가 앞으로 공황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모두 동조한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는 곧 미국경제’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고 미국경제의 붕괴가 곧 대공황으로 이어진다는 예측에도 동의한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붕괴론’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간과했지만 현대 경제 시스템에 일조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견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마르크스의 종말

국내 경제위기가 결코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점가엔 현재의 위기를 ‘공황’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들 책은 무한정한 생산과 이익이 얼마나 허상이었으며 개인의 존엄성을 계산하지 않은 정보화·세계화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비판한다.

론에서부터 아담 스미스, 케인즈, 슈페터, 헤일 브로너, 갈브레이스, 윌러스타인 등이 자본주의의 끝을 지적했다.

최근 출간된 책 중 《제2차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비 바트라 지음)는 비즈니스 제국인 미국 주도 경제의 종말을 논한다. 진보 성향의 인도출신 경제학자인 라비 바트라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1929년의 그것과 너무도 닮았다고 지적한다. 종잡을 수 없는 증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경쟁, 고개를 드는 보호 무역주의, 세계적 리더십의 부족, 전세계적인 과잉생산, 기업합병을 통한 경제력의 편중 등이 그 증거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1998년 크리스마스부터 1999년 여름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된다고 예언한다. 저자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렸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통설을 뒤엎는 균형 이론을 펼친다.

이른바 ‘프라우트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주택세 공제 ▲주택비용 절감 ▲엄격한 은행규제 ▲사회보장세를 관세로 대체 ▲자유로운 외국투자 ▲투기의 완벽한 배제 ▲누진과세 등을 정책 방안으로 내세우는 이론이다. 《대공황의 습



한 시대의 마감을 예견하는 ‘세계대공황’ 관련 책들이 선보이고 있다.

격》(송희식 지음, 정선희 옮김)은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논증을 펼치면서 경기침체와 대공황시대의 경제를 분석한다.

정보통신부 산하법인인 새문명아카데미 원장으로 공황연구팀 지문을 맡고 있는 저자는 1929년 이후 경제학 교과서에서 골동품 취급을 받았던 ‘경기침체’ (Depression)에 주목한다. 1929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으며 모든 개인과 사회의 생존이 상충국면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와 대공황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을 ‘채무(債務)와 환상(幻想)을 기반으로 한 도박판’에 비유한다. 이 도박판의 주인공은 물론 미국이다. 저자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가치란 사회공동체의 결속성이 돈의 야수성(野獸性)을 이길 만큼 강력한 체제를 의미한다.

한 시대의 마감 예견

찰스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박명섭 옮김)는 1929년 있었던 전대미문의 공황에 대한 일종의 백서다. 지금처럼 그 때에도 세계시장의 주인이었던 미국이 리더십을 포기하면서 공황상태는 벌어진다. 후버 대통령이 관세율을 52% 올리는 스무트-홀리 관세를 승인해 보호무역주의에 오히려 불을 붙이면서 과잉생산문제가 세계시장을 흔들었고 증시는 대혼란 속에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은 당시 전대미문의 불황 속에 벌어진 각국 수뇌부의 오판과 공동체간의 대립, 핫머니의 자본시장 공격 등을 생생하게 증

언하면서 새로운 대처능력을 상징적으로 강조한다.

‘전대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에서 공동저술한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는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힘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가 그나마 버티어 온 것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 때문이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상황과 국가의 대처방식을 비판한다. “친미 일변도이면서 수세적인 대응 자세를 버리고 경제 신탁통치의 무효화를 향해 거국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이밖에도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엠마뉴엘 블레스트로의 《예고된 공황》은 지금의 아시아 경제상황을 ‘공황’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공황이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을 논증한다. R.J 오베리의 《대공황과 나치의 경제회복》은 2차대전을 전후한 독일과 유럽의 경제상황을 살피면서 공황이후 나치의 등장과 그들의 경제정책이 세계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황이론들은 하나같이 한 시대의 마감을 간접적으로 예견한다. 무한정한 생산과 무한정한 이익이 얼마나 허상이었으며, 국가와 개인의 존엄성을 계산에 넣지 않은 정보화와 세계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그 대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듯싶다. ◆

경제 공황을 다룬 책

제 목	저 자	출판사
1929, 미국 대공황	앨런	고려원
제2차 세계 대공황이 온다	라비 바트라	세종서적
대공황의 습격	송희식	모색
대공황의 세계	찰스 P. 킨들버거	부키
예고된 공황	엠마뉴엘 블레스트로	바다
경제 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전대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대공황	이수광	하나로
대공황과 나치의 경제회복	R.J 오베리	해남